

중국, 일대일로 중심으로 군사적 영향력 확대

- 서방의 우려에도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중국의 일대일로로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중국의 군사 활동에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향후 활동 반경을 넓히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됨
- 북극 안보에 대한 참여의 목적도 의심돼 향후 북극 지역에서의 군사 안보적 이슈도 대두될 전망

- 2017년 7월 25일 발트해에서 러시아-중국 간 군사 합동 훈련 실시
- 중국 최신예 함정이 원거리 1만9천km 항해해 사상 처음으로 발트해에 진입하는 등 서방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경제권 보호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군사활동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 밝힘
- 중국은 지난해 말 일대일로 사업의 중요 파트너인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에 해상 무역 보호를 명분으로 해군 군함을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부티 기지 역시 해상 무역 보호와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보급기지라는 점을 강조한바 있음
- 한편, 2017년 7월 27일, 핀란드에서 개최된 라-핀 정상회담 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합동 해상 훈련을 예로 들며 NATO 비가입국인 핀란드와의 추후 군사적 협력을 시사한 바 있음



그림 1.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이재윤, '16.01.21.) (레드라인: 육상로드, 블루라인: 해상로드, 주황색원: 일대일로 주요 8개 거점 항구)

자료 1 : 연합뉴스 ('17.07.25.)

중국, 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 구축

- 지부티는 중국의 일대일로 실현의 핵심 거점이며 북 아프리카와 중동,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긴급사태 대응에 있어 군사적 요충지 역할 수행
- 중국 지부티 기지는 미군 드론 특수전 부대가 있는 르모니에 기지와 불과 13km 거리에 있고 일본 자위대의 활동거점과도 근접하여 군사 안보적 이슈로 대두될 전망

- 중국은 '17년 8월 1일,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을 맞아 지부티 기지 운영 시작
- 아덴만 서쪽에 있는 지부티는 바다를 건너 아라비아 반도와 마주하고, 북쪽으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와 연결되며, 동쪽으로는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에 닿아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상 무역통로를 연결하는 곳임
- 지부티 기지의 주요 임무는 소말리아 해적 단속과 유엔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재외국민 보호, 응급 구호, 국제 전략항로 안전 유지 등으로 소개
- 부두와 항만시설 및 무기고와 군함 헬기 방호시설 구축. 중국 해군 육전대(해병대)와 특수부대, 작전 병력과 일반 인원을 합쳐 수천 명 상주 예정
- 중국은 기지 구축을 위해 지부티와 에티오피아를 연결하는 3억2200만달러(약 3700억원) 규모의 수도관 건설과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철도 건설(4억9000만달러), 비츠딜리 신국제공항 건설(4억5000만달러), 아프리카 최대 국제 자유무역지구 건설 등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 진행 중

자료 2 : 한국경제 ('17.08.07.)

미국, 북한·이란·러시아 통합 제재법안 발효

- 미국의 새 대러 제재안이 겨냥하는 러시아의 경제제재로 인해 유럽 기업들이 수십억 유로를 들여 러시아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에너지 사업이 대거 포함돼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
-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극 지역에서의 군사안보적 긴장도 확대되는 양상
-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관측되는 원유공급 차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 논란 예상

- 미국 의회는 '17년 7월 25일 북한·이란·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을 일괄 처리하면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및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응징하는 기존 대(對)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제재를 승인
- 대러 추가 제재안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 등 기존 사건에 더해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 추가
- 러시아 외교부는 2017년 7월 31일 자국 내 미국의 외교시설 두 곳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미국 외교 인력의 60%를 자율적으로 삭감하라고 지시
- 또한, 러시아는 미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칠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 티타늄 등 주요 광물이나 원유 수출 금지, 항공우주사업 협력 중단 등이 추가 보복 후보로 예상됨
- 한편, 미국은 '17년 7월 4일 북한의 1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8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8월4일) 제출
- 이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연광석, 해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시행될 시 북한의 수출소득 연간 30억 달러 중 10억 달러(약 1조1천억 원)의 자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법안 주요 내용	
대북 제재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 북한 노동자의 고용과 선박 운항 금지,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이란 제재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무기금수 조치와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 등
대러 제재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해킹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과의 거래 차단. 러시아 석유 기업의 미국·유럽 내 석유사업 규제 강화 등

표 1.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법안 주요 내용 (참고: 뉴욕타임즈, 경향신문, 美파이낸셜타임즈)

자료 3: The New York Times ('17.08.02.)

러시아나토 긴장 고조, 불안감 커지는 중부유럽

- 러시아의 자파드 훈련은 최근 미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전차 미사일 등 살상무기 공급 계획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풀이됨
-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극 지역에서의 군사안보적 긴장도 고조되는 양상

- 10만명의 러시아 병역이 오는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벨라루스에서 양국 합동군사훈련 '자파드(Zapad: 러시아어로 '서쪽을 뜻함)'에 참여할 계획을 밝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충돌 우려 고조
-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및 크림반도 병합, 시리아 내전 개입,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원과 발트해 연안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이번 벨라루스의 대규모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며 냉전시대를 연상케 하는 위협적인 규모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긴장 고조
- 러시아의 이번 훈련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해온 대규모 군사력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훈련 지역이 벨라루스, 서부 러시아, 발트해 연안의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서진(西進)을 본격화하는 의도로 분석
- 기존 러시아 벨라루스 훈련은 옛 소련 시절부터 서유럽과의 완충지대인 벨라루스에서 4년마다 진행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 열린 2013년 자파드 훈련에는 1만2000 병력과 탱크 10대, 발틱함대 소속 함정 10척, 전투기 40대가 동원된 바 있음
- 앞서 러시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78조원을 투입해 지상군 증강 계획을 밝힌바 있음

자료 4: 매일경제 ('17.08.02.)

세계 최초의 한국산 쇄빙 LNG운반선, 북극항로 통과하여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LNG 운송 시작

- 북극지역 자원 개발 및 한-러 북극 에너지 협력이 탄력 받게 될 것으로 전망
- 아시아와 유럽-대서양 연안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인 북극항로는 파나마 운하 또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 각각 5000km, 7000km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있어 북극항로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최초의 상업용 쇄빙LNG운반선인 크리스토프 드 마제리 (Christophe de Margerie)가 북극항로를 이용하여 노르웨이의 스노히트(Snøhvit) 유전에서 한국까지 LNG 수송 중
- '17년 7월말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 스타토일(Statoil)의 멜코야(Melkøya) 가스 터미널을 출발한 본 쇄빙LNG운반선은 '17년 8월 1일, 북극해에 속한 러시아령 카라(Kara)해에 진입한 것으로 발표
- 총 1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항해로 러시아 쇄빙선의 에스코트 없이 북극항로를 통과하여 최종 목적지인 한국으로 항해 예정
- 본 쇄빙LNG운반선은 원래 노바텍(Novatek)이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에 이용하기 위해 한국의 대우조선해양(DSME)과 계약하여 건조한 최초의 ARC7급 쇄빙선 기능을 갖춘 LNG운반선임
- 크리스토프 드 마제리 쇄빙LNG운반선은 약 2.5m 두께의 얼음을 깨며 항해가 가능하며, 소유주인 러시아 국영해운사 소브콤플로트(Sovcomflot)에 따르면 본 쇄빙LNG운반선은 45MW의 엔진 출력을 가지고 있어 핵 쇄빙선과 동등한 능력을 가짐
- 야말 프로젝트는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반도 LNG를 개발해 연간 1650만 톤의 LNG를 생산할 예정이며 올해 말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되면 본 쇄빙 LNG운반선을 포함한 총 15척의 쇄빙LNG선(대우조선해양 건조)은 러시아 사베타(Sabetta)항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아시아 및 북유럽 지역에 LNG를 운송할 예정



그림 2.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쇄빙 LNG운반선 항해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자료 5 : *The Independent Barents Observer* ('17.08.01.)